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5. 10.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중국(청도)
2. 출장기간: 2025. 8. 25.(월) ~ 8. 28.(목) (4일간)
3. 출장목적: 사회복지·도시개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4. 출장자 명단 및 보고서 작성자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창녕군의회	의장	홍성두	
2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가은	
3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렬	
4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신은숙	
5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종호	
6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정선	
7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8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종혜	윤리특별위원장
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재한	
1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노영도	부의장
1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상재	
12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서혜영	
13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성철	
14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영묵	
15	의회사무과	주무관	한주성	
16	의회사무과	주무관	엄지호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승인	불승인
☒	☐

목 차

I. 출장일정	01
---------------	----

II. 주요업무 수행사항	02
---------------------	----

1. 공식방문기관	02
2. 주요시설 · 현장견학	20

III. 출장소감	21
-----------------	----

1. 홍성두 의장	21
2. 노영도 부의장	31
3. 김종호 의회운영위위원장	39
4. 이가은 기획행정위원장	47
5. 이동훈 산업건설위원장	53
6. 하종혜 윤리특별위원장	59
7. 신은숙 의원	65
8. 김재한 의원	72
9. 박상재 의원	79
10. 이승렬 의원	86
11. 김정선 의원	94

IV. 총평	104
--------------	-----

· 붙임1(중국 국가현황)	107
· 붙임2(2025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09
· 붙임3(2025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113
· 붙임4(차량영수증)	118
· 붙임5(차량운행 완료확인서)	119
· 붙임6(통역확인서)	120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일정

주요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주요출장일정
8.25.(월)	대한민국 (부산)	중국 (청도)	▶출국 ▶공식방문: 해천만 온천 호텔 ▶현장탐방: 5·4 광장
8.26.(화)	중국 (청도)		▶공식방문: 백두산 요양원 ▶현장탐방: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 노산
8.27.(수)	중국 (청도)		▶공식방문: 도시계획관 ▶현장탐방: 대북도, 잔교, 청도맥주박물관
8.28.(목)	중국 (청도)	대한민국 (부산)	▶귀국

 공식방문기관

1. 해천만 온천호텔

○ 일 시: 2028년 8월 25일(월)

○ 장 소: 해천만 온천호텔

○ 주요내용

- 해천만 온천호텔 시설의 소개 및 견학
-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 방문결과

- 청도 해천만 온천호텔의 주요 특징은 지중해 스타일의 리조트 호텔이며, 대규모 온천 시설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오산만(오산만)의 해수와 해수 온천을 활용한 테마파크형 온천과 함께 유럽식, 일본식, 한국식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온천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600객실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풍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양식의 건축물들이 있다.
- 세계적인 수준의 실내외 온천 시설로, 과일탕, 한약탕 등 60개 이상의 테마별 온천탕이 있으며, 다양한 광물질이 포함된 해수(海水)를 사용하며 높은 산, 화원, 폭포, 연못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온천 센터를 자랑한다.
- 온천 시설 외에도 인공 파도, 수중 미끄럼틀 등의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고, 수영장, 쇼핑몰, 대극장 등의 부대 시설도 갖추고 있다.

○ 질의응답

질의) 해천만의 기본개요에 대해

답변) 해천만은 중국 산둥성 행정구역 내에 있는 만(灣)으로, 산둥반도의 남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다. 만의 길이는 약 32 km, 폭은 약 27 km 정도이며, 표면적은 과거 약 560km²에서 현재 약 362 km²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지리적·역사적으로 청도의 항만 기능, 산업 발전 및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질의) 해천만의 특징에 대해

답변) 첫째, 해천만 온천은 자연 입지가 좋아 북중국지역의 우수한 자연항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대형 선박 운항도 가능하다(항만 및 해양 인프라 측면). 둘째, 만을 가로지르는 대형 교량 및 해저터널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 연결성이 매우 좋다. 예컨대 청도 교주만 대교가 있다(교통 구조 측면). 셋째, 해안선, 만과 맞닿은 도시 경관, 해변 및 해양레저 등의 관광 요소가 발달되어있다(관광 및 경관 자원의 측면). 넷째, 만은 반폐쇄형(semi-enclosed) 만 형태로 조수 흐름, 수질, 간척사업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다(환경·생태적 이슈).

질의) 해천만의 역사 및 개발 배경은?

답변) 해천만 지역은 독일 식민지 시기(1898년부터) 청도해천만 주변을 포함한 여러 해양·무역 거점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일본, 중국 정부 통치하에서 항만·공업도시로 성장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만 주변에서 간척(토지매립)사업, 산업단지 조성, 교량·터널건설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면적 축소 및 환경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개발 배경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유·요양·관광 융합 수요 증가가 개발의 요인이다.

질의) 해천만의 향후 활용 및 전망에 대해

답변) 해천만은 항만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계속되고 있으며, 만 주변 산업 및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다. 관광 및 휴양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높다. 해안 경관, 바다 전망, 레저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가능성 존재한다.

도시·인프라 개발은 만을 가로지르는 교량·터널 덕분에 교통망이 강화되어, 도시 확장 및 산업지구 개발이 수월해지고 있다.

환경·생태·지속가능성 과제로 수질 관리, 간척에 따른 생태 변화·홍수·조수 흐름 변화 등의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어, 향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중요하다.

질의) 개발 방식(주체)는?

답변) 중국여행그룹(CITS) + 청도시 정부입니다. 민관협력형 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질의) 민관협력개발에 따른 각 역할과 그 성과에 대해

답변) 먼저 정부 역할은 부지 제공, 기반시설(도로·전력·수자원) 구축이며, 민간 역할은 자본투자, 건설, 운영,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그 성과는 지속적 운영수익 +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현시점에서 분석하자면?

답변) 4가지로 요약 정리하여 말하자면, ①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②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③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 ④지역 관광산업 파급 효과 확대라고 할 수 있다.

○ 해천만 온천호텔의 주요 성공 요인 분석

구분	주요내용	결과
복합개발	온천·숙박·문화·상업·주거 결합	체류형 소비 유도
웰니스 중심	의료·스파·재활 결합	고령층 및 치유관광 수요 흡수
브랜드화	“해양+온천+문화” 이미지 확립	도시 경쟁력 제고
지역 연계	현지 고용·특산물 판매	지역경제 순환 구조

○ 벤치마킹 포인트

- 청도 해천만(海泉灣) 온천호텔은 중국 내에서도 “문화·치유·복합 관광형 개발”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벤치마킹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복합 개발형 모델

- 온천 + 숙박 + 문화 + 상업 + 주거가 결합된 다기능 단지로 설계
- 관광객뿐 아니라 장기 체류·건강치유·은퇴층까지 포괄 구조
 - ▶ 벤치마킹 포인트: 시설 단일 기능(예: 온천, 요양)에 그치지 않고 치유·관광·커뮤니티 복합화 추진

② 치유·웰니스 중심 설계

- 단순한 온천 체험이 아니라 의료·휴양·심신 치유를 통합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 온천치유센터 + 스파 + 요양케어 + 건강검진센터를 결합
 - ▶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 온천·요양시설에 의료 연계형 웰니스 시스템 도입.(예:온천 치유센터 + 실버케어 + 재활 운동 프로그램)

③ 민관합작(PPP) 개발 구조

- 개발사(중국여행그룹 CITS)와 지방정부가 토지·인프라·운영을 분담
- 정부는 기반 시설 제공, 민간은 건설·운영·마케팅 담당
 - ▶ 벤치마킹 포인트: 복지·관광 프로젝트 추진 시 민관 협력형 투자모델(PPP) 도입으로 재정 효율화 기대

④ 지역문화 · 자연환경의 브랜드화

- 청도의 해안 · 온천 · 한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스토리텔링
- 海泉(바다와 온천이 만나는 곳)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도시 정체성 강화
- ▶ 벤치마킹 포인트: 개발 시 지역 특색(자연 · 문화 · 역사)을 핵심 브랜드로 설정

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 리조트 내부 상업시설 ·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순환 구조 구축
- 인근 주민 고용, 지역 기업 참여로 지역발전 연계
- ▶ 벤치마킹 포인트: 복지시설 · 리조트를 지역 산업 연계형으로 설계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농특산물 판매(지역경제 선 순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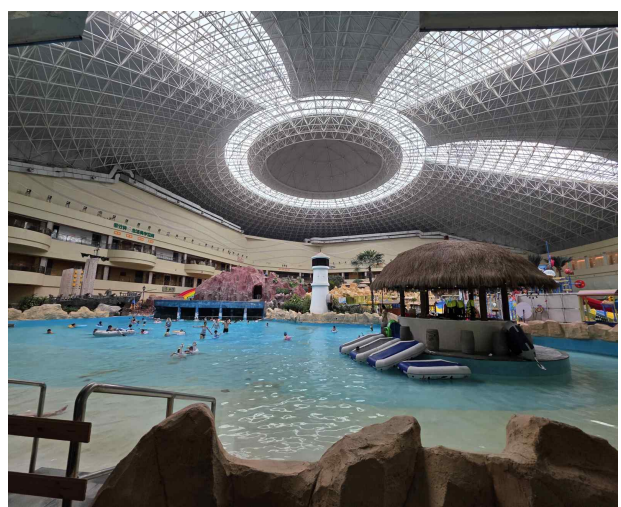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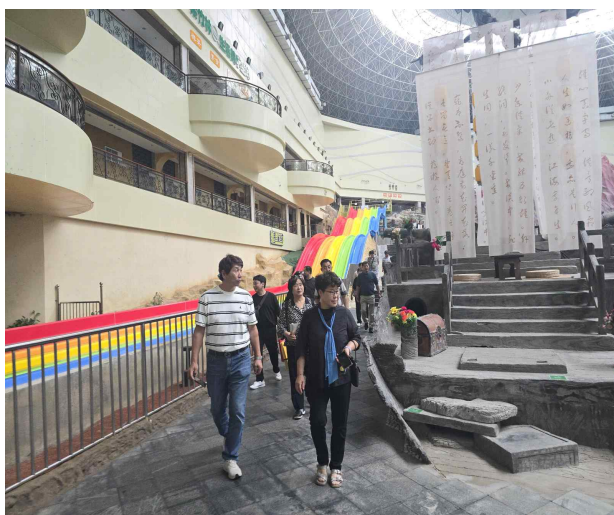
⑥ 스마트 인프라 및 관광 동선 설계

- 교통 접근성(교량 · 고속도로 · 지하철 연계) 우수
- 단지 내 스마트 시설 · 친환경 교통수단 ·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 ▶ 벤치마킹 포인트: 친환경 · 스마트 리조트 개념 도입 (전동카트, IoT, 재생에너지 등)

⑦ 브랜드 마케팅 전략

- 청도 온천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도시 이미지 증대에 기여
- 크라운플라자 등 글로벌 브랜드호텔 유치로 신뢰도 확보.
- ▶ 벤치마킹 포인트: 민간 브랜드 · 글로벌 체인과 협업해 시설 이미지 · 품질 향상

○ 관련사진



2. 백두산 요양원

○ 일 시: 2028년 8월 26일(화)

○ 장 소: 백두산 요양원

○ 주요내용

- 요양원 시설의 소개 및 견학
-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 방문결과

- 2006년에 손옥남 설립자가 청도시 지머구에 인민폐 30만 위안을 투자해 ‘복운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 조선족 고령자만을 수용하며, 외국인이나 비조선족은 입소 대상이 아니며, 중국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입소자들의 자비 부담 및 자원봉사자들의 기부와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운영형 노인요양시설이다.
- 전문 간호원이 배치되어 병원 치료는 물론 민간요법과 임상 경험을 참고한 건강 관리와 심리교육치료가 제공된다.
- 한국 명절때마다 문화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질의응답

질의) 설립 배경에 대해

답변) 조선족(한민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었다.

질의) 백두산 요양원의 정식 명칭은?

답변) 산둥성 청도시백두산조선족양로원이다.

질의) 설립 시점 및 형태 및 규모에 대해

답변) 개원일은 2012년 9월 25일으로, 시설 형태는 민간 형태 아파트이다. 규모는 200여개 침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질의) 비용 및 서비스 수준은 어떠한가?

답변) 월 요금이 약 2,000~3,500위안으로 한국 화폐로는 약 400,000~700,000원 정도이다. 위 비용은 기본 생활 돌봄을 전제로 한 것이며, 중환자 간병, 의료 서비스 포함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

질의) 양로원 운영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답변) 조선족·한민족 중심의 언어·문화 친화형 양로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질의) 이곳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답변) 지역사회 연계형 복지, 공동체 돌봄, 저비용·정서중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질의) 백두산조선족양로원의 타 요양원 대비 경쟁력(차별성)에 대하여 말하자면?

답변) ① 조선족·한인 중심의 문화적 친화성이다. 이곳은 언어와 음식, 생활 문화가 한민족 정서에 맞춤형되어 있다. 중국 내 다수 양로원은 표준 중국어·중국식 생활 패턴을 따르지만, 이곳은 조선족 중심이라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한식 식단·한국식 생활방식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정서적 안정감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언어·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즉, 문화적 소속감과 심리적 편안함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② 지역사회 및 재외 한인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이다. 청도는 산둥 지역 한인·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다. 청도한국국제학교, 한인회, 청도총영사관, 조선족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따뜻한 공동체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외부 봉사단, 학생 공연, 영사관 위문 등으로 활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가 활발해 외로움이 덜하고, 문화 행사가 풍부한 편이다.

③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 기관은 중국식 생활비 수준 + 한국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양로원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편으로, 일반적으로 월 2,000~3,500

위안(약 40~70만 원 수준)이다. 기본 돌봄 외에도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 노래·체조·종교활동 등을 함께하고 있어, “한국적 정서 + 합리적 비용”이라는 조합이 경쟁 포인트이다.

④ 의료·복지 협력 가능성이다. 청도는 대형병원(예: 청도대학부속병원 등)과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또한 우리 요양원 자체에 상주 간호 인력과 의료 협약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인(원장)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 병원과의 연계가 원활한 편이다.

⑤ 지리적 접근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이다. 청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대기질이 양호하며 해안 도시로서 노년층에게 만족도가 높은 도시이다. 또한 공항·항구·한국행 항공편이 많아 한국 가족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이다.

○ 운영모델 요약

구분	주요내용	결과
정체성 형성	조선족 문화·언어 중심 환경 조성 (언어, 음식, 명절, 생활습관)	한민족 정서 형성
지역 연계	한인회·학교·교회·영사관 등과 협력	시설의 대표성 강화
공동체 운영	주민·봉사자 중심의 상호 돌봄 구조	고립 예방 및 지속적 사회참여
효율적 재정	자원봉사 + 지역기부 기반의 운영	타요양원 대비 저렴한 입소비용 (월 2,000~3,500위안 수준)
정서·참여 중심	정기적인 공연·문화행사	정신건강·자존감 회복

○ 벤치마킹 포인트

① 언어 · 문화 정체성 중심의 돌봄 모델

- 조선족(한민족) 어르신 중심의 문화적 맞춤형 환경(문화공동체)
▶ 벤치마킹 포인트: “언어 · 음식 · 음악 · 명절문화”를 통합한 정체성 기반 케어 프로그램 도입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형 복지

- 지역공동체 속의 양로원 형태: 청도한국국제학교 학생, 조선족 여성협회, 영사관, 한인회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 · 봉사하며 지역사회가 시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구조
▶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 내 대학, 학교, 종교기관, 봉사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약 · 프로그램 운영, 정기 문화행사, 세대통합 활동(학생 공연 · 편지쓰기 · 명절 잔치 등), 요양원을 마을 속 열린 복지공간으로 설계 및 운영

③ 공감형 인력 운영 및 돌봄 철학

- 직원 상당수가 조선족 출신(안정적 정서 · 유대감을 형성하는 간병인)
▶ 벤치마킹 포인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동반자로 인식시키는 철학 구축

④ 낮은 비용 구조 + 공동 돌봄 시스템

- 기본시설 + 지역사회 후원 + 자원봉사 시스템이 병행되어 운영비 절감 가능 및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편
- 고비용 요양원이 아닌 “실속형 · 공동체형 복지시설”이라는 점이 핵심
▶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사회 기부 · 후원 네트워크 구축(기업 · 학교 · 교회 등과 협력)

⑤ 한·중 교류형 복지 모델

- 한국 영사관, 한국국제학교 등이 방문하며 “해외 한민족 복지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음
- 문화·행정 교류가 활발하여, 국제적 모델로 확산 가능성이 높음
▶ 벤치마킹 포인트: 국내외 교류(자매결연, 문화교류) 프로그램 설계 및 복지시설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⑥ 정서 중심 복지 프로그램

- 입소자들이 직접 문화활동을 하는 등 개인 활동이 활발한 편
- 단순 돌봄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함
▶ 벤치마킹 포인트: “돌봄”보다 “존중과 참여” 중심의 복지 방향 설정, 정신건강·정서안정 중심의 케어 전략

○ 관련사진



3. 청도 도시계획관

○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 장 소: 청도 도시계획관

○ 주요내용

- 도시계획관 시설의 소개 및 견학
- 청도 도시 개발에 관한 질의·응답

○ 방문결과

- 청도 도시계획관은 청도의 근대 도시계획의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 청도는 20세기 초 독일 식민지 시기부터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발전은 독일인들이 도시 건설 기법과 기준을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 도시계획관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청도 도시계획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도시의 미래 발전 계획을 보여주는 곳이다.
- 청도 전경, 축소모형, 360도 체험관, 지리측량 정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층별 다양한 테마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청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질의응답

질의) 청도의 장기 도시비전은 무엇이며, 계획 수립 주기는?

답변) 청도는 해양경제·첨단제조·관광문화의 3축을 중심으로 ‘압축형·복합형’ 성장 모델을 지향한다. 법정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운영되며, 항만·철도·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는 10년 단위 부문계획으로 세분 관리한다.

질의)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환경·경관 훼손을 없었는지?

답변) 대규모 사업은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시뮬레이션을 의무화했다.

질의) 구도심 재생과 신도시 개발의 균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 구도심은 거점을 중심으로 순차 재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시는 산업·주거·서비스를 15분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향후에는 두 축(구도심, 신도시)이 연결될 것이다.

질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도시계획은 어떻게 연동되는가?

답변) 공공건물 신축·리모델링 시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에너지 수요·공급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청정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질의) 관광·문화 거점(예: 5·4광장) 조성 시 운영관리의 원칙은?

답변) 야간경관·공연·이벤트를 연중 기획하고, 상업·숙박·교통
분산대책을 동시에 설계한다.

질의) 재난·기후 리스크(폭우·폭염·해수면 상승) 대응은?

답변) 해안부 지하공간은 방재등급 상향과 펌핑체계를 중복 설계한다.
호서기에는 그늘·쿨루프·쿨링미스트 등 열저감 시설을 확대
하고 있다.

○ 벤치마킹 포인트

① 야간경제·도시브랜드 강화

▶ 벤치마킹 포인트: 야간경관·음악분수·소규모 공연을 결합
한 창녕형 야간명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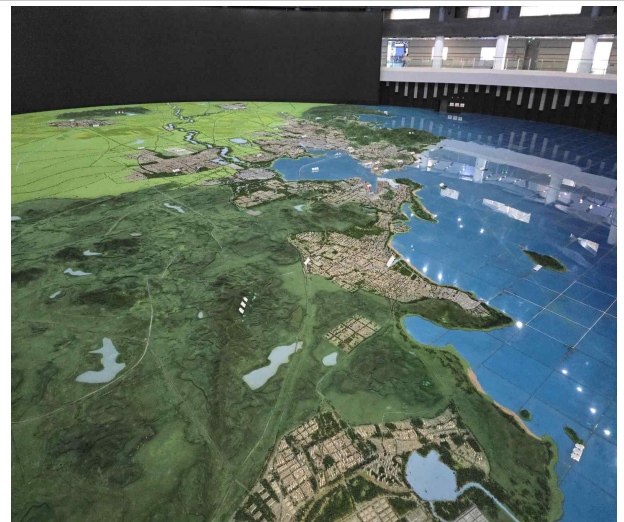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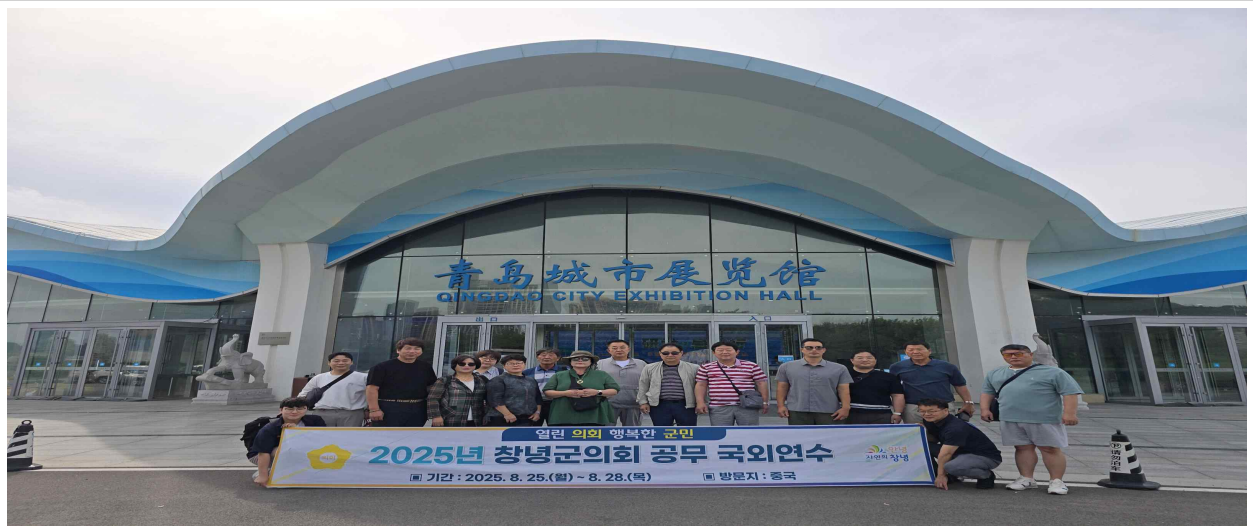
② 온천·생태 결합형 관광벨트 조성

▶ 벤치마킹 포인트: 부곡온천-우포늪-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고, ‘웰니스(부곡온천)+생태교육(우포늪)+
역사체험(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패키지 개발

③ 에너지 전환의 지구단위 적용

▶ 벤치마킹 포인트: 공공건물·온천지구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시범 도입(태양광·지열·폐열회수 등)

○ 관련사진



주요시설 · 현장견학

1. 5·4 광장

- 청도 5·4광장은 1919년 중국의 5·4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역사적 공간으로, 해안 일대의 탁 트인 풍경과 붉은 조형물 ‘오월의 바람’이 인상적인 곳이다.
- 해안 주변의 고층 빌딩과 조명, 음악분수 등이 어우러져 낮과 밤 모두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야간에는 붉은 조형물과 해안가의 조명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준다.
-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변 상가 · 푸드트럭 · 해변산책로 등이 구성되어 있었다.
- 광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문화(야외공연 · 댄스 등)는 도시문화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2.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

-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는 창녕군 대합면 출신 김기태 대표가 설립한 한국계 주얼리 제조기업으로, 1997년 설립 이후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하며 성장한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 공장 내부에서는 주얼리 디자인부터 코팅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공정이 숙련된 인력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공적 현지 정착의 모범 사례였다.

■ 홍성두 의장

○ 청도 연수의 의의

2025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중국 청도 국외 연수는 복지, 도시개발,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귀중한 기회였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각 기관과 시설에서 얻은 경험은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청도 해천만 온천호텔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었다.

○ 해천만 온천호텔: 부곡온천의 재도약의 청사진

청도는 중국 산둥성의 대표적 항만도시이자 관광도시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성과 활발한 국제 교류,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우리 창녕군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발전 모델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해천만 온천호텔은 단순한 숙박이나 휴양 차원을 넘어, 관광·문화·산업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형 시설로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부곡온천은 과거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온천 관광지였으나, 부곡하와이 폐장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도 해천만 온천호텔 견학은 부곡온천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본 소감문에서는 해천만 온천호텔 견학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부곡온천과의 비교, 전국 온천관광 사례 분석, 그리고 창녕군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세계적 규모의 온천 복합시설

청도 해천만 온천호텔은 단순한 온천시설을 넘어선 복합형 리조트였다. 유럽풍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외관은 웅장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었고 내부에는 60여 개의 테마탕, 대규모 객실, 쇼핑 아울렛, 극장, 레스토랑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야말로 온천, 숙박, 쇼핑, 문화공연을 한 자리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는 “All-in-one 관광단지”였다.

테마탕의 종류는 다양했다. 과일탕, 한약탕, 미네랄탕 등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형태였으며, 특히 해수를 활용한 온천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차별화 요소였다. 해수의 미네랄 성분을 활용해 건강과 미용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담수 온천과는 다른 독창적인 콘텐츠였다.

○ 여가와 관광의 융합

호텔 방문층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중심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어른들은 스파와 쇼핑,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극장과 아울렛은 관광객이 장기간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관광은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장기간 체류’를 할 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해천만 온천호텔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온천시설과 호텔 숙박, 문화공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었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즐긴다(All in one)” 는 개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 해천만 호텔의 향후 과제

다만, 해천만 온천호텔은 개관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관 일부에서는 바닷물의 염분 영향으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해안 지역 관광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하며, 향후 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리·보수 전략의 체계적 수립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화려한 규모와 최신 시설만큼이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완하는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는 부곡온천 또한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정기적인 보수와 유지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적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관리 상태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청결과 위생은 관광시설의 기본인데, 이런 작은 부분의 관리 소홀은 이용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시설의 크기나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서비스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해천만 온천호텔 뿐만 아니라, 부곡온천을 비롯한 우리 지역 온천관광 시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 부곡온천과의 비교 및 시사점

부곡온천은 1970~80년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온천 관광지였다. 부곡하와이는 한때 우리나라 가족 단위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으나, 시설 노후화와 관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침체를 겪어 결국 폐장하였다. 부곡하와이의 폐장은 창녕군 관광산업 전반에도 큰 타격을 주었고 현재에도 부곡온천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비해 해천만 온천호텔은 시설 현대화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온천욕 뿐만아니라 테마탕 · 공연 · 쇼핑 · 레저 등 복합적 요소를 결합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과 소득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다.

따라서 부곡온천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복합형 온천리조트로 탈바꿈해야 한다. 해천만 온천호텔은 그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다만, 콘텐츠 측면에서는 부곡온천이 오히려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년 개최되는 부곡온천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정기적인 공연 프로그램 역시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또한 외국 교류단이 창녕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숙박지가 부곡온천이라는 점은 이미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곡온천 외에도 전국에는 다양한 온천관광지가 존재한다. 경북 울진 덕구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건강·치유 이미지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덕구온천호텔·콘도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충남 아산온천은 온천욕과 스파, 호텔 숙박을 결합한 복합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양평 지역의 온천시설들은 수도권 접근성을 활용해 도심형 웰니스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온천 + α 전략이었다. 단순한 온천욕 제공이 아니라, 건강, 문화, 축제, 숙박, 레저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반면 침체된 지역들은 시설 노후화, 차별성 부족, 관광 수요 변화 대응 미흡 등이 공통된 문제였다. 이러한 분석은 부곡온천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청도 해천만 온천호텔 견학은 우리 창녕군 부곡온천의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운영 방식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 중국 자율주행 기술

중국 청도 신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도로 위를 달리는 독특한 차량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작은 깡통처럼 보이는 이 차량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 이 차량이 바로 자율주행 택배차임을 알게 되었다.

순간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로 알고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 실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실제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청도 신도시에서는 자율주행 택배차가 도심의 물류와 배달 시스템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이 차량은 특정 구간의 도로와 교통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사고율이 매우 낮아 시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구도심에서는 자율주행 택배차가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구도심 도로는 비교적 좁고 불규칙하며, 차량과 보행자, 이면도로 구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청도 신도시는 이러한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신도시 조성 시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도로 폭과 교차로 설계뿐 아니라, 물류 동선, 신호 체계, 안전 장치, 보행자 구간, 차량 우선도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로 중국 사회에 미칠 기대감

청도 신도시 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청도의 산업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물류 효율성 측면의 개선 사항이다. 기존의 물류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운송 수단을 운전하며 물품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되고 차량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함으로써 배송 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었다고 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배송 경로에서는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물류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은 큰 잠재력을 갖는다고 한다. 청도에서는 신도시 도로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 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였다. 이로 인해 청도 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정교한 교통 체계는 사고 건수를 줄이는 효과를 넘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택시, 버스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의 자율주행화도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공공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은 의미가 크다. 자율주행 택배차나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는 쇼핑, 배달, 이동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주문한 상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동 수단을 선택할 때도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청도 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는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기존 운송 및 물류 관련 직종은 감소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관리, 유지보수, 데이터 분석, 안전 관리 등 새로운 직무가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의 재편과 기술 중심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도시 설계와 연계될 경우, 도시 계획과 교통 체계 전반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물류 효율성, 교통 안전성, 시민 생활 편의성 향상 등 다각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기술 도입과 도시 설계, 정책적 지원이 결합될 경우 더욱 큰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신도시 조성 시 이러한 자율주행 친화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실제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상용화 측면에서는 중국에 비해 다소 뒤쳐진 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시범 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정 신도시나 공공기관 구간에서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는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이미 일부 신도시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특히 중국은 도로 설계와 도시계획 단계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고려하여 신도시를 조성했다.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전용 구간, 정밀한 교통 신호 체계, 최적화된 물류 동선 등을 미리 설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존 도로와 도시 구조에 후속적으로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많아 상용화에 제약이 따른다.

우리 군은 현재 창녕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창녕대합미니복합타운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하수도 관리, 교통 신호 제어 등 주요 도시 기능을 지능형으로 네트워크화하는 스마트 신도시로 탄생할 예정이다. 본 의원은 이번 연수의 사례를 참고하여 창녕대합미니복합타운이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도시 설계를 반영하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 자율주행 기술의 시사점

이번 청도 신도시 방문 경험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실생활 정착은 도시 설계와 정책,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미 신도시 단계에서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신도시 및 복합타운 설계에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녕대합미니복합타운의 경우, 자율주행 차량 친화형 설계를 반영한다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스마트 복합타운 조성은 창녕군이 미래형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노영도 부의장

○ 청도 연수를 준비하며

본 의원은 이번 중국 청도 연수를 준비하며 도시계획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창녕군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과거의 국외연수 사례와 비교를 통해 각 도시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 청도 도시계획관

청도는 과거 어촌과 농지가 대부분이던 도시였다. 그러나 20세기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산둥성이 제조 산업의 핵심지로 떠오르면서 현재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산둥성의 대표 도시로 자리 잡았다. 청도는 해양산업, 관광,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도시계획관은 이러한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도시계획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장기적 도시 비전과 계획적인 기반 시설 조성이다. 도로, 항만, 주거, 녹지, 상업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마치 2023년 국외연수 당시 싱가포르 URA에서 보았던 통합형 도시관리 모델을 연상시켰다.

청도는 거대한 자본력으로 세워진 신도시이다. 도로, 건물, 항만 등 모든 시설이 계획적으로 정비되어 있었고,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개발된

도시라는 점은 과거 우리 연수단이 방문하였던 일본의 교토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교토는 화려하고 현대적이기 보다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지키며 살아가는 도시였다. 도시의 발전에는 여러 형태가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청도가 미래를 향한 ‘진취형 도시개발’을 보여 준다면, 교토는 과거를 품은 ‘보존형 발전’의 모범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창녕군의 도시 발전 모델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 ‘균형’ 속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청도처럼 현대적 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토처럼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접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창녕군은 부곡온천,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우포늪 등 역사와 생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 두 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창녕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본다.

○ 청도의 청정에너지 정책

청도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한때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이 심각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석탄 보일러 난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항만 물류의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청도는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청정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사실 청도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중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도시계획관을 방문하면서 청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향후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유심히 살펴보고자 했다.

청도는 기존의 석탄 중심 난방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천연가스 및 전기 기반의 친환경 도시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연간 약 100만 톤의 석탄 사용량을 줄일 것을 계획하였으며, 동시에 공장·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특히 항만 및 물류단지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공공건물에는 지열 난방과 폐열 회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多)에너지 융합 구조를 만들어낸 점이 인상 깊었다.

실제로 청도의 미세먼지 수치는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 결과 도시 전체의 대기질이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관광 경쟁력 또한 향상되었다고 한다. 환경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혁신과 도시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정부 주도로 변화를 꾀한 것은 정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민간 주도의 감시체계는 다소 미흡해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편으로, 행정과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시민단체의 설립과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서 행정이나 기업의 불법 행위를 민간이 충분히 감시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동안 중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에 집중한 나머지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대응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친환경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증이 들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교육에서 출발한다.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정에서는 아쉽게도 중국의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없었으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를 기대한다.

청도의 사례를 보며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느꼈다. 우리 창녕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군의 청정 창녕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단속 중심 접근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율적 환경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주민이 직접 환경보호의 주체로 나서고 마을 단위의 자율 정화 활동이나 폐기물 분리수거 캠페인 등을 통해 생활 속 친환경 문화를 개인이 실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번 연수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창녕군이 깨끗한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청정도시 창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군정에 제시하고,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창녕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 방문

우리 연수단은 청도에서 한국인 기업가(김기태 대표)가 운영하는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이하 태성주얼리)를 방문했다. 태성주얼리 김기태 대표는 창녕군 대합면 출신으로, IMF 직후 모든 기반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하는 성공한 기업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수공예 주얼리 제작 현장에서 관찰한 정교한 기술력과 디자인은 감탄을 자아냈다.

창녕 출신 인물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다. 김기태 대표 역시 고향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지역 청년과 기술 교류, 창업 멘토링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출향 인사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들의 해외 경험과

기술을 지역 발전에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태성주얼리 방문은 우리 창녕군의 산업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의원은 태성주얼리의 ‘협업’에 많은 관심이 갔다. 독자적인 디자인을 생산하면서도,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하는 모습은 이미 전 세계에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창녕 한우, 단감, 양파 등 지역 농산물 가공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 우수 특산물이나 해외 유명 지역특산물과 협업(콜라보)을 한다면 많은 지역의 홍보 효과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포늪 생태공예품과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창녕형 농공융합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창녕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농산물과 공예품을 연계하는 등 고향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청도 5·4광장의 의미

청도 5·4광장은 1919년에 일어난 중국의 5·4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해안 일대의 탁 트인 풍경과 붉은 조형물, 조명, 음악분수 등이 어우러진 야경이 인상적이었다. 현장을 직접 바라보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그 규모와 관리 수준의 완성도였다. 과거 싱가포르 연수 당시 마리나베이 샌즈 일대의 야경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화려했으며,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수익 창출의 모범적인 사례로 느껴졌다.

광장의 중앙에 위치한 붉은 조형물 ‘오월의 바람’은 젊음과 열정, 민족정신을 상징하며, 이 지역이 근대 중국의 자주독립 운동의 중심지였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밤이 되면 바다와 맞닿은 광장 전체가 빛으로 물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역사와 일상이 공존하는 도시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런 장면은 도시 브랜드와 정체성을 동시에 살리는 공간 설계의 좋은 예시로 느껴졌다.

5·4광장은 근대사의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소였다. 여타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은 5·4광장은 그 화려함 속에서도 잔잔한 품격과 역사적 무게감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눈앞의 조명과 조형물이 빛나는 순간에도 그 속에는 한 세기의 역사를 품은 차분한 울림이 느껴졌다.

○ 연수 후기

이번 중국 청도 연수는 도시의 성장과 환경, 산업, 역사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본 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된 화두가 도시의 외적 성장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깊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도 도시계획관에서 본 체계적인 도시 관리 시스템은 우리 창녕군의 도시 기반 조성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 속에서도 체계적 계획과 미래 비전을 갖춘 도시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또한 청정에너지 정책을 통해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이 양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우리군의 친환경 정책 추진 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 방문은 ‘사람이 곧 자산’임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 고향 출신 기업인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 인재의 가능성과 기술력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출향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5·4광장을 둘러보며 한 도시의 역사적 상징이 시민의 자긍심과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도의 도시정책은 우리 창녕군의 문화도시 발전 방향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시사점과 배움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창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김종호 의회운영위원장

○ 들어가며

이번 국외연수는 해천만 온천호텔, 백두산 요양원, 청도 도시계획관 등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군의 현안 중 하나인 부곡온천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해천만 온천 호텔 방문

청도 해천만 온천 리조트는 청도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지모구 아오산만에 자리 잡고 있다. 50억 위안(약 9,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개장한 이곳은 숙박, 온천, 엔터테인먼트, 상업 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휴양 단지다. 이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해수(海水) 온천'이라는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과 미용 효과를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해천만 리조트는 그 규모만으로도 방문객을 압도한다. 호텔, 온천, 극장, 아울렛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이 리조트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 체류형 관광' 모델을 지향한다. 이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현대 관광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부곡온천이 단순한 온천욕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복합 문화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이 리조트의 성공적인 브랜딩은 '중국 유일의 해양 브롬염 온천'이라는 독창적인 가치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온천이 아닌, 특정 성분과 효능을 강조함으로써 타 온천과 명확한 차별점을 만들어냈다. 또한, 거대한 실내 돔 안에 인공 파도, 동굴,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테마 시설을 조성하여 온천을 정적인 휴식 공간이 아닌 동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재창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부곡하와이가 부곡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방식이었지만 현재 부곡은 부곡하와이의 폐쇄로 단순 온천지역으로 머물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재는 과거와 같은 명성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곡온천 역시 '국내 최고 수온의 유황온천'이라는 핵심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하였을 때 해천만 온천호텔은 웅장한 건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양한 시설 구성 등 물리적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키즈존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대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로 지어진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방문객 수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으로 보이며, 화려한 외관과 달리 세부적인 관리나 유지보수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세계적인 시설을 갖춘 해천만 온천 호텔 방문을 통하여 1호 온천 도시로서의 부곡의 발전방향 다시 생각해보면

첫째,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 해천만 온천 호텔의 사례는 시설 투자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부곡온천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이벤트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시설 관리, 친절 서비스, 특색 있는 먹거리, 계절별 축제 등 디테일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둘째, '부곡온천'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고 현대적으로 브랜딩해야 한다. 해천만이 '해양 브롬염 온천'을 내세웠듯, 부곡온천은 '78℃ 유황 온천'이라는 독보적인 자산을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스토리로 포장해야 한다. 단순한 '오래된 온천'이 아닌, 피부 미용과 건강 증진에 탁월한 '프리미엄 웰니스 목적지'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를 모든 홍보와 마케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해천만 온천 호텔이 겪는 운영의 어려움은 과도한 동시 투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부곡온천의 재활성화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핵심인 온천 시설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확보된 자원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숙박, 상업,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넷째, 체류형 관광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 해천만 온천 호텔의 '원스톱' 모델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부곡온천을 중심으로 우포늪, 화왕산 등 창녕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숙박,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키지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창녕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해천만 온천호텔 방문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1호 온천도는 다시 한번 부곡이 발전하고 창녕시 지정이나 단순 온천욕 인구의 증가에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5·4광장 방문과 유람선 벤치마킹

연수 첫날 저녁에 중국 5·4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5·4광장을 방문하고 광장에 있는 선착장을 이용하여 유람선을 탑승하였다. 5·4광장은 청도시 신시가지 해변에 위치한 대형광장으로 중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5·4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광장이다.

주요 상징물은 “오월의 바람”이라는 햇불 도는 회오리바람을 형상화한 높이 30m의 붉은색 대형 조형물이고, 신시가지의 고층 빌딩 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객들의 산책명소이다. 특히 주변 고층 빌딩들을 배경으로 화려한 레이저 조명 쇼가 펼쳐져 야경 감상의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우리가 방문하여 유람선을 탑승하던 시기에도 레이저 조명 쇼가 진행되었는데 유람선에서 보는 레이저 조명 쇼와 5·4광장은 청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야경이었다.

이와 같이 레이저 조명 쇼, 5·4광장 및 유람선이라는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로 관광객에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창녕의 발전을 위해서 참작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본 의원이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창녕군도 이제는 주변의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낙동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백두산 요양원

이번 연수의 여러 일정 중에서도 가장 깊은 울림과 성찰의 시간을 안겨준 곳은 바로 '백두산양로원' 방문이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민족의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삶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며, 동포애의 뜨거움과 함께 창녕군 노인복지의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도시 즉묵구에 위치한 백두산조선족양로원은 4층짜리 단독 건물로 겉보기에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민족의 정과 숭고한 인류애가

가득했다. 연변대학 의학원을 졸업한 의사 출신의 김설화 원장님은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오직 조선족 어르신들을 돌보겠다는 일념으로 이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없이 입소한 어르신들이 내는 최소한의 비용과 순수한 후원만으로 110여 명에 달하는 분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자아냈다.

양로원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다. 김설화 원장님의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 치료 주선은 물론, 한방과 양방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00% 조선족 어르신들만 입소하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느끼게 했다.

이처럼 양로원은 한 개인의 헌신을 넘어 동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복지 모델'의 성공 사례였다. 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만큼이나 이웃의 관심과 참여가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방문은 본 의원에게 창녕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귀중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창녕군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현재 창녕군의 노인복지가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때로는 행정적 틀에 갇혀 어르신 개개인의 정서적 필요를 세심하게 채우지 못할 수 있다. 백두산양로원에서 본 것처럼, 지역 내 봉사단체, 종교계, 기업, 학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민간의 자원봉사와 후원을 장려하고, 이를 공공 복지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도 백두산조선족양로원 방문은 단순한 기관 시찰을 넘어 지역 만리에서 민족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을 통해 '함께'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청도도시계획관 방문

청도 도시계획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방대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관된 흐름이었다. 19세기 말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독일과 일본의 점령기를 거치며 형성된 근대 도시의 골격이 오늘날의 청도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상세한 자료와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관의 핵심인 거대한 도시 전체 모형은 청도시가 수립한 '6개 특색 도시' 건설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압도적인 규모로 보여주었다. 이는 ①현대 산업 선행 도시 ②선도형 현대 해양 도시 ③국제화 혁신형 도시 ④국제 포털 허브 도시 ⑤고품격 해안 도시 ⑥현대화 거버넌스 모델 도시라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도시의 모든 계획이 하나의 큰 그림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다. 2035년

까지의 장기 계획을 담은 이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5개년 계획과 3개년 액션플랜으로 구체화되어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창녕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단기적인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군의 역사와 자연환경, 문화적 특성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군민과 함께 창녕의 미래상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청도 도시계획관 방문은 도시의 미래가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리더십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 맺음말

이번 3박 4일 의정연수는 1호 온천도시로서의 창녕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어떤 노인복지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향후 창녕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가는 기획행정위원장

○ 청도 공항

청도 공항을 출국 및 귀국 과정에서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공항 직원들의 근무 태도와 보안 절차의 철저함이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엄격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폭발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이중 검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짐 검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며 매우 꼼꼼히 검수하고 있었다.

본 의원은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운영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다. 실제로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주요 공항에서는 몇 차례 발생했던 테러 위협 이후로 수하물 개별 검수 원칙을 강화했다고 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잦은 국가 특성상, 철저한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마약·총기류 등 밀반입 위험물 반입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잠재적 위험은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만큼 자동화 검색장비의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위험물 탐지기술 도입 등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안은 불편함의 대가가 아닌 안심의 기본조건이다. 검사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지켜진다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우리 창녕군은 직접적인 공항 운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역 행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각종 축제,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전 안전점검 강화와 위기 대응 매뉴얼의 체계화가 중요하다. 특히 3.1민속문화제, 부곡온천축제, 낙동강 유채축제 및 비사벌문화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는 보안 의식과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

청도 방문 일정 중 가장 특별한 인상이 남은 곳은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태성주얼리)였다. 이곳은 우리 창녕군 대합면 출신의 김기태 대표가 설립한 한국계 주얼리 제조기업으로, 낯선 이국 땅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고향인의 자긍심을 다시 일깨워 준 대표적인 출향인의 사례다.

머나먼 중국 땅에서 같은 고향 출신 인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웠고 우리 창녕군민의 저력과 근면함을 몸소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분이라 느꼈다. 김기태 대표의 눈빛 속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느껴졌다. 서로에게 ‘고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김기태 대표는 1997년 IMF 직전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과감히 중국으로 진출해 청도에 주얼리 전문 제조공장을 세웠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낯선 제도 환경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품질 개선을 통해 현재는 세계 유명 브랜드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우뚝 성장했다. 한때 8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연 매출 1,2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소위 ‘잘나가는’ 기업이었다고 한다.

현장 견학 중 본 의원은 정교하게 제작되는 주얼리 공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직접 견학한 주얼리 제작 현장은 그야말로 ‘장인의 손끝’이 살아 있는 공간이었다. 대부분의 제품이 자동화가 아닌 숙련된 인력의 손으로 한땀 한땀 세밀하게 제작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장인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빚어내는 결과물들은 그야말로 예술품에 가까웠다.

또한 도금 및 전착코팅 공정을 통해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구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급 브랜드 납품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경쟁력이었다. 무엇보다도 인체에 무해한 소재 사용과 철저한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었다.

중국의 주얼리 산업은 한때 촉망받는 산업 분야였지만, 인건비 상승과 기술 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 등지로 이전했으나, 김 대표는 여전히 청도의 산업 인프라와 숙련공, 공급망을 강점으로 삼고 현지에 남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기태 대표는 “값싼 인건비만 좇는 시대는 지났다. 품질과 관리, 그리고 기술이 진짜 경쟁력이다”라며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급 브랜드 중심의 사업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기태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본 의원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그는 “창녕은 자신의 뿌리이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고향이며 언젠가 창녕에서도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의 말 속에는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함께 후배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본 의원은 그의 말과 태도에서 도전정신과 결단력, 그리고 책임감이 만들어낸 진정한 리더십을 느꼈다.

특히나 주얼리 제작 과정에서 본 숙련된 수작업 기술은 공예산업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는데, 우리군도 이들과 연계·협업하여 기능인력 양성과정, 산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 마련한다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창의적 디자인 + 기술력을 결합한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특화산업(예: 농산물 가공, 공예, 관광상품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태성주얼리 방문을 통해 우리 군이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실감했다. 해외 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인들은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면,

지역 청년 창업 지원, 산업 기술 교류, 기능인 양성 등 다양한 형태로 창녕군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잔교(栈桥)

청도 시내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해안가를 따라 걷던 중 길게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다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잔교(栈桥)라고 불리는 다리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 있었고 수많은 갈매기들이 잔교 위를 날아다니며 바다 위 산책의 낭만을 더하고 있었다.

잔교는 1891년 청나라 말기 군사 부두로 건설되었고 후에는 독일 조계 시기인 1898년부터 본격적인 개항과 함께 항만·물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길이 약 440미터에 이르는 청도의 랜드마크로, 끝 부분에 위치한 팔각형 정자인 ‘회란각(回瀾閣)’은 청도를 대표하는 로고로 쓰인다고 한다.

바다 위로 뻗은 다리는 ‘바다와 도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접점이었다. 잔교 위를 걷는 이들 대부분이 담소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상인들, 야외 카페, 길거리 공연 등이 어우러져 있었다. 마치 도시가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듯한 풍경이었다.

잔교 위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과 도시 스카이라인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잔교 끝자락에선 따뜻한 윤슬이 바다 위에 반사되고 있었고,

거기서 젊은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도시의 품격은 결국 사람과 풍경이 만드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해주었다.

잔교처럼 ‘걸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사진 찍고 싶은’ 공간은 우리 창녕군을 생각나게 했다. 우리군 역시 명덕못, 남지철교, 우포늪 등 아름다운 호수와 강변 산책로, 그리고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선셋 포인트 명소를 보유하고 있고 이곳과 비견될 만큼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다만 잔교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만큼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이동훈 산업건설위원장

○ 5·4광장

중국은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와 사건이 축적되어 있으며 청도에서도 그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청도 맥주박물관을 비롯해 독일 조계지 유적지 등은 이 도시가 단순한 항만 도시가 아니라 근대사의 격변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청도는 중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인 5·4운동의 핵심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시다.

1919년 베이징에서 시작된 5·4운동은 일본의 청도(산둥반도) 점령을 계기로 일어났다. 청도시는 이 운동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민족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안가 중심부에 5·4광장을 조성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붉은 조형물 ‘오월의 바람’은 청춘, 열정, 민족정신을 상징하며, 본 의원 또한 이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곳은 옛 민족정신과 현재 시민들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3·1운동과 통하는 역사적 공감이 크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3·1운동은 5·4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창녕군은 경남지방 최초로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던 양국 시민들의 항일 정신과 민족적 연대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주체성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정신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또한 이곳은 현대적 도시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광장 주변에는 각종 상점, 음식점, 푸드트럭 등이 줄지어 있었고 해변 산책로에는 현지인과 관광객이 어울려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붉은 조형물과 해안 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며 시민들은 사진을 찍거나 야외 공연을 관람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도시의 역사적 상징물이 지역의 경제활동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재탄생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청도 5·4광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상시적 문화광장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설 공연 프로그램,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야외댄스나 음악회, 지역 청년 예술가의 전시 공간 운영 등 광장은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케 한다. 5·4광장이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처럼, 우리군 또한 역사적 정체성과 현대적 문화활동이 결합된 문화 도시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광장무(广场舞)

중국 거리 곳곳을 둘러보며 또 하나 눈에 띈 점은 중국의 광장문화였다. 청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중국에서 광장은 단순한 공공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문화 활동을 펼치는 생활무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그 광장문화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광장무(广场舞)’다. 광장무란 말 그대로 광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말하며, 주로 중·노년층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모여 집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흔하다. 본 의원 또한 중국 광장 곳곳에서 시민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광장무는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광장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음악 소리로 인한 소음, 광장 점유로 주민과의 마찰, 무질서한 장소 사용 등으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활동을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광장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 집단문화의 유산으로, 공동체 중심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도시에서는 세대 구성과 생활 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공공질서와 시민 참여 문화의 균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중국 광장문화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간 합의 등의 사회적·정책적 관리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장무를 통해 본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은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행정이 아닌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의 힘이었다. 본 의원은 창녕군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축제, 상시 문화공연, 청년 예술 프로그램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청도 맥주박물관 방문 소감 및 역사적 의의

청도 맥주박물관은 1903년, 당시 청도가 독일의 조계지였던 시기에 독일과 영국의 합작으로 설립된 독일식 맥주 양조장에서 비롯되었다. 독일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해 설계와 생산 공정을 구축했으며 맥주 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술·설비를 모두 유럽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청도 맥주는 초기부터 유럽식 제조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고품질 맥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서구 열강이 청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이 청도 양조장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이다. 당시 중국은 외국의 기술과 설비를 그대로 계승하되, 현지의 인력과 자원을 결합하여 점차 ‘중국형 산업모델’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의 청도 맥주는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는 글로벌 브랜드이자 중국 근·현대 산업의 상징이 되었다.

박물관 내부에는 당시 사용된 양조 설비와 병입 기계, 원료 보관소, 그리고 초기 생산 과정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100년이 넘는 맥주 산업의 발전 과정, 기술 변화, 그리고 청도 시민들의 자부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초기 독일식 양조장과 현재의 자동화 공정 설비를 비교하며, 역사를 보존하면서 발전을 이룬 산업유산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청도 맥주박물관을 둘러보며, 한 도시의 정체성과 산업이 어떻게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발전시켜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룩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사례(외국 기술 → 현지화 → 브랜드화)는 우리나라에도 찾아볼 수 있다. 청도 맥주가 독일식 기술을 토대로 중국인의 기호에 맞게 재해석했듯 우리나라의 OB·하이트맥주는 193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건설한 맥주 공장에서 비롯되었다.

본 의원은 기술의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임을 느꼈다.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 현지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킨 청도의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다. 우리 창녕군 또한 지역의 자원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부곡온천,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우포늪, 남지철교 등은 창녕이 가진 ‘원석’이며,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 연수후기

이번 국외연수는 중국 청도라는 도시가 역사적 자산과 현대적 감각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도라는 도시는 지역 발전의 본질이 단순한 개발이 아닌 ‘균형과 조화’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시민들의 자부심 어린 표정, 그리고 역사적 공간을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 도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 도시의 발전은 정책과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점을 실감했다.

청도의 사례는 우리 창녕군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 군의 자연·문화적 자산 또한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와 결합하여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5·4광장이 역사적 상징성과 시민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창녕군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창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단순히 보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통해 창녕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하종혜 윤리특별위원장

청도 국외연수를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곡하와이 문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문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등 해결책이 쉽지 않은 여러 난제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연수 첫날, 비행기에서 내려서 곧바로 청도의 해천만 온천호텔을 방문하였다. 먼저 방문지의 외형상 규모에 놀랐고 실내로 들어가 온천시설을 둘러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창녕의 부곡하와이가 떠올랐다. 잠시 모두가 타임머신을 탄 듯, 부곡하와이에서의 추억과 그 시절의 활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곡하와이가 훨씬 좋았는데…” 라는 아쉬운 말이 절로 나왔지만, 지금의 부곡하와이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닌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 한때 우리 군의 자랑이었던 부곡하와이가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졌다.

실내 온천시설을 둘러본 뒤, 실외에 조성된 야외 온천장을 보았다. 현지 안내인으로부터 야외에서 사용하는 해수온천수는 인공적으로 데워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연의 70℃ 온천수를 보유한 우리 창녕이 얼마나 복 받은 고장인지 새삼 느꼈다. 다른 지역은 물을 데워서라도 온천을 만드는 반면, 우리는 자연이 선사한

온천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더욱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해수 야외온천을 둘러본 후, 온천시설과 함께 조성된 리조트 숙소동 건물로 이동했다. 건물 외관부터 “과연 중국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규모가 컸으며, 내부 또한 고급스럽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안내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리조트는 우리 돈 약 5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시설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투자 규모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부곡하와이의 재생과 부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처럼 대규모 민간투자가 병행되는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이 온천시설은 상시 고용 인원이 약 600~700명에 달하며, 성수기에는 파트타임 인력을 포함해 최대 1,500명까지 고용한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부곡면의 전체 인구가 약 3,500명, 가구 수가 2,000여 가구임을 감안하면, 거의 한 가구당 한 명이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 규모였다. 모든 인구정책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이 들어올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둘째 날에는 청도 인근에 위치한 백두산양로원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조선족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양로원으로, 방문 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양로원을 마주했을 때의 인상은 시설이

다소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과, 입구에 설치된 커다란 철문 및 초소 형태의 경비실이였다. 다소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외관이였으나, 안으로 들어가자 원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양로원의 운영 현황과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현재 이곳에는 약 110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으며, 직원은 26명, 의사는 원장을 포함해 2명이라고 한다. 입소하신 조선족 노인 대부분은 청도 내 호적이 없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양로원은 주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출생 지역에 따라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며, 한 번 정해진 호적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한다. 백두산양로원에 입소한 대부분의 조선족 노인들은 청청도 시내 호적이 없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양로원은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직원 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외부의 개인 후원 없이 기업인 몇몇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가 지정한 통장을 통해서만 후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조선족 노인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복지 문제도 결국 국제적 협력과 제도적 틀 속에서 다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설은 대체로 외부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백두산양로원은 그렇지 않았다. 원장 김설아 씨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부끄럽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으며, 시설이 다소 노후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김 원장은 시설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로, 과거 군인이었던 치매 환자들의 돌봄 문제를 꼽았다. 군 복무 시절의 ‘근육기억’ 때문에 이들은 단순한 제지에도 빠르게 반응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처음에 보았던 정문의 커다란 철문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레 납득이 되었다.

또한 김 원장은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아 법적으로 규정된 인원보다 적은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직원 교육과 독서, 자율 학습 등 백두산양로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 속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강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셋째 날에는 청도도시계획관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청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소였다. 15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청도가, 현재 인구 8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청도의 성장 과정은 외국 세력과의 교류가 용이한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산의 발전사와 유사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도시 발전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추진력 측면에서 청도가 보여준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청도는 1891년 청나라가 군부대를 설치하면서 평범한 어촌에서 벗어나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고, 몇 년 뒤 삼국간섭 이후 독일의 조차지가 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발전이 이루어졌다. 독일인들이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하며 청도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작은 어촌이었던 청도가 인근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기지 설치에 따른 외부 인구의 유입과, 독일 조차지 시기 유럽인의 이주가 가져온 도시 기반의 변화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창녕군 역시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농촌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구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프라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창녕의 미래세대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은숙 의원

○ 청도 백두산요양원 방문

2025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중국 청도 연수는 창녕군의 미래 복지정책, 도시개발, 환경, 관광, 인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한 가운데,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이 바로 청도 지머구에 위치한 백두산 요양원이었다.

우리 사회 역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 요양원의 운영 방식과 현장에서 느낀 경험은, 향후 우리 창녕군의 복지정책 수립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의원은 이 요양원의 개요와 특징을 정리하고, 방문 소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청도 백두산요양원의 특징

2006년 설립자 손옥남씨가 30만 위안을 투자하여 설립한 백두산 요양원은 과거 ‘복운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현재 백두산 요양원(또는 백도산조선족양로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두산 요양원은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민간운영 요양원이다. 시설은 입소자들의 최소한의 자비 부담과 자원봉사자들의 기부, 봉사활동 등 최소한의 도움만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설립 이래로 입소대상을 조선족 어르신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 향후에도 이 방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백두산요양원의 원장은 설립자 손옥남 씨의 딸인 김설화 씨로, 연변대 의과대학에서 임상의학을 전공하여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인 출신이다. 의사라는 전문직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엘리트 직업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김설화 원장은 안정적인 의료인의 길을 포기하고 민족의 돌봄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논리나 개인적 안정성을 넘어, 민족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명감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기관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 지원 없이 스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운영 철학이 민족적 가치와 공동체 복지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김설화 씨가 보여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은 대단히 놀라웠고 존경스러웠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민족에 대한 헌신보다는 직접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복지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본질적으로는 타인을 향한 헌신과 책임감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사명감을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작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사회 전체의 연대가 커질 것이다.

원장이 직접 의사 자격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점과 간호인력이 상주하면서 의료적 돌봄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입소자와 가족 입장에서 큰 신뢰감을 주는 요소다. 노년층은 건강 상태가 다양하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상주하여 운영된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운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요양원 중에서도 원장이 의사 자격을 갖고 직접 운영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요양원은 원장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의료진과 협력하거나, 일부는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점에서 백두산요양원의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 요양원과 비교해도 매우 특이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요양원은 최대 수용 인원 약 300명 중 현재 약 170명의 입소자(모두 조선족)가 있으며,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의 문화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향인 한국의 옛 사진을 시설에 전시하고, 명절(추석, 단오 등) 행사와 전통 음식(김치,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곳은 한민족 공동체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관련 사회단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인적·사회적 연결망까지 확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입소자들은 고향과 문화적 유대감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와 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설관리는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청결한 환경은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백두산요양원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듯했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 공간 관리와 입소자들의 생활 공간(침구류 상태 등 정리 정돈) 등이 대체로 양호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은 원장과 운영진의 헌신과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요양원 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있어 이동권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된다. 시설의 이동 편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국 내 노인요양시설과의 비교(차별화된점)

중국의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대체로 정부나 기업이 운영하며, 시설 수준과 서비스 질이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백두산 요양원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중국 내 조선족 사회는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더 나아가 동화 정책으로 인한 민족 정체성의 약화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두산 요양원은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거점이자 정체성 보존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전통 명절 행사, 음식 문화 계승, 한국과의 정서적 연결망 형성 등은 다른 중국 내 요양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자적인 운영 방식으로, 입소자들에게 돌봄 이상의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국가 재정 지원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적 기반은 입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일정 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문화적·정서적 요소를 반영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시설은 ‘돌봄’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어 입소자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과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백두산 요양원은 민족 문화와 공동체적 가치를 돌봄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입소자들에게 단순한 생활 보장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 역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미래에는 지역과 세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노인복지도 단순한 생활 돌봄을 넘어,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복지 모델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정책적 시사점

백두산 요양원의 사례는 우리 지역사회가 향후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형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간이 중심이 되면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입소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부족하고 시설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형 모델은 공공부문의 지원 및 제도적 장치와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의 중요성이다. 복지란 단순히 의식주를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백두산 요양원이 민족 전통과 문화를 생활 전반에 녹여내는 것은 그 좋은 사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다세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가치다.

아울러, 향후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심리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 돌봄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단순한 생활 돌봄만으로는 노년기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의료적 전문성에 기반한 신뢰,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심리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활동을 통한 삶의 활력이 동시에 제공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전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와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두산 요양원의 엘리베이터 부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물리적 접근성은 가장 기본적인지만 자주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이동권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시설 설계와 개선 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다.

○ 창녕군 및 한국 사회에의 적용 과제

백두산 요양원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대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우리 창녕군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인복지 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정서적 복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과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입소자들의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명절 행사, 지역문화 체험, 맞춤형 여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민간·자원봉사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가 중요하다. 의료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심리·문화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소자의 신체적·정서적·문화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고품질 요양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김재한 의원

○ 중국에 대한 인식과 변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잡한 국가”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본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청도 연수를 통해 직접 현지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상당 부분 오해였음을 깨달았고 시민 의식의 발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었다. 공항에서부터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고 도심을 지나는 동안 도로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시민들이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은 본 의원이 생각해 온 중국의 모습과 크게 달랐다.

○ 첫인상

중국에 처음 도착하여 마주한 곳은 청도 공항이었다. 공항은 한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인데, 청도 공항은 예상외로 매우 깔끔했다.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청소가 잘 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도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화장실 청결 상태 또한 우리나라의 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입국 심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출입국 심사 과정이 체계화되어 혼잡함이 덜했고, 공항 내부에서 쓰레기나 불결한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출발 전 본 의원이 가졌던 중국은 어수선하다는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다.

○ 청도 거리의 인상

연수 기간 동안 버스를 타고 청도 신도시와 구도시를 여러 차례 오가게 되었다. 특히 잘 정비된 도로와 깨끗한 거리 풍경을 보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도로 포장 상태는 매끄럽고, 차선과 신호 체계가 명확했다. 도로변에는 가로수와 꽃이 정돈되어 있었고, 녹지대 관리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인구가 오가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

중국 청도의 거리를 보며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조경 관리였다. 길거리마다 전정 작업을 하는 인력이 있어 도로변과 광장의 꽃과 나무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함’과 ‘심미적 만족’을 제공하려는 청도 시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으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다. 반려동물이 배변을 하면 즉시 봉투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중국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성숙했다는 점을 실감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위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과제였고, 공공장소의 청결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홍보와 제도적 노력이 지금의 변화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위생 상태가 다소 아쉬웠다. 우리군 의회 방문단은 공식방문 일정으로 해천만 온천호텔을 방문하면서 호텔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청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럴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중국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시설에서 이런 점이 드러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 발전 요인

과거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 혼잡한 거리 풍경으로 비춰진 중국이었지만 세 가지 요인 덕분에 이미지를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도시개발과 인프라 정비이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계획 도시 모델을 적극 추진해왔고, 청도 역시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설계한 대표적 항만도시 중 하나다.

청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해양신도시’ · ‘황도 경제기술개발구’ · ‘청도서부신구’ 등 다수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폭, 보행자 공간, 조경 구역, 공공시설 배치 등을 사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미관상 통일되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주요 거리와 광장에는 구역별로 전담 청소·조경 관리 인력이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둘째, 대규모 행사의 유치다.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이미지와 도시 환경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청도시는 2018년 상이히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도로 곳곳에 다채로운 색깔의 꽃과 나무를 배치하는 등 거리를 단장했다고 한다.

또한 “14차 5개년 체육 사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 큰 규모 체육경기를 연평균 30개 이상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러한 대회유치는 시가 외부에 보여줄 이미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청소, 조경, 도시 미관 관리 등에 중대한 동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시민 의식의 향상이다.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은 곧 위생과 청결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고, 이는 사회 전반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어졌다. 청도는 중국 내에서도 1인당 GDP가 높은 도시로, 산둥성에서 가장 발전한 해양 산업 중심지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거리 환경, 위생, 미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했고 ‘깨끗한 거리 = 선진 도시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민들은 청도가 국제적 관광도시라는 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거리나 공공장소의 청결, 공공질서 유지 등에서 시민 자율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전기·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대기 오염 개선 사업의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청도는 석탄 기반 난방시설을 천연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고, 산업 및 주거 부문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왔다. 동시에 전기버스 보급 및 대체에너지 차량 운행 확대, 시민들 사이의 자가용 전기차 확산 등을 통해 교통 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전체의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시사점

이러한 청도의 도심 미관 발전 요인은 우리군의 도시 환경 개선에도 교훈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도시개발과 인프라 정비가 단순히 기반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청도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노후 시설이나 비효율적 공간을 정비하고, 조경·공공시설·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미관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러한 점은 우리군의 지역 재생 과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시설(예: 부곡하와이)은 외부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군은 노후 시설을 지역 문화·관광·복지 자원으로 재 활용하거나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비 과정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기반형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때, 도시의 기능적 효율성과 심미적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 행사의 유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반 시설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도는 국제회의 및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도시 전반의 청결 관리, 조경 개선, 공공시설 정비 등을 강화하였다.

우리군은 역사·문화적 자원과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국제 또는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한다면 도심 정비, 거리 미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정적 동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행사의 일회성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미관 관리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 경주시만 하더라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도심 경관 정비와 공공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역사적 이미지와 현대적 기반을 조화롭게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우리군 역시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지역형 도시미관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거리 위생과 청결, 시민 참여 강화다. 청도 시민들은 ‘깨끗한 거리 = 선진 도시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거리 청

결과 공공 질서 유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 매해 농번기마다 가축분뇨 악취 민원과 영농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이라는 특성상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 쓰레기 관리, 공공 질서 개선 등에서 시민들의 자율 참여,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면 단순 행정적 청결 관리뿐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재 의원

○ 해천만 온천 호텔의 특징

2012년 약 1조 원(50억 위안)을 투자해 개장한 해천만 호텔은 총면적 180만㎡에 달하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형 리조트이다. 청도 시내에서 약 1시간,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순한 온천 시설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천만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객이 리조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숙박, 식사,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복합공간’이라는 점이다.

60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5성급 호텔과 청도 최대 규모의 해수 온천 시설, ‘몽귀금도’ 공연이 열리는 대극장, 쇼핑 및 레저시설, 그리고 대규모 회의와 비즈니스 행사가 가능한 컨퍼런스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 구조는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리 군의 경우 과거 부곡하와이와 주변 온천장, 호텔 등이 비슷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전국 최대의 온천도시로서 명성을 유지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부곡하와이가 영업을 멈추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제약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고, 엔데믹 이후 제1호 온천도시 지정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해천만 리조트 방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온천도시로서의 창녕의 명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하여 낡은 온천 관광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는 것이 부곡온천이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창녕군의 발전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백두산요양원

백두산요양원은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설화 원장의 어머니 손옥남 씨가 2006년에 설립한 시설이다. 이곳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의료보험 지급액과 순수한 민간의 노력으로 운영되어 왔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110명의 노인을 26명의 직원이 돌보고 있었으며, 입소자 중 절반 이상이 치매나 뇌출혈 환자였다. 지금까지 약 300여 명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으며, 요양원은 그들의 임종을 지켜주고 장례까지 정성껏 치러왔다고 한다.

백두산양로원은 100% 조선족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도이화한국학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한인 단체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국가 간 협의 문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공식 통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입소 노인들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비용과 순수한 민간 후원만으로 110여 명의

조선족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자아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복지시설 비리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손옥남 초대원장과 김설화 원장 모녀의 2대에 걸친 헌신과 봉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태성주엘리)

우리 연수단은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태성주엘리)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우리 군 대합면 출신인 김기태 대표가 설립한 공장으로, 한때 8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연 매출 1,2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다소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김기태 대표의 성공을 보면서 김기태 대표와 같은 기업인이 군이 외국이나 중국이나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다.

4선의 다선 의원으로서 지역구인 계성면에 공단을 조성해 보그워너 창녕공장 등을 유치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창녕군의 젊은이들이 창녕에서 제2의 김기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청도 도시계획관

청도 도시계획관 방문은 도시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청도의 도시계획 철학과 전략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우리 창녕군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공간 관리 체계 수립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청도 도시계획의 핵심은 ‘역사 보존과 현대적 발전의 조화’에 있었다. 독일과 일본의 조계지 시절 건설된 유럽풍 건축물들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여 독특한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해안선을 따라 현대적인 마천루와 경제개발구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전략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점은 가야 고분군을 비롯한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우리 창녕군의 발전계획 수립에 큰 참고가 될 것이고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 잔교

잔교는 청도의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과도 같은 곳이다. 1891년 청나라가 군수물자 보급과 함대 정박을 위해 건설한 440m 길이의 군용 부두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독일과 일본의 조차지를 거치며 청도 근현대사의 영욕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1931년 재건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다리 끝에 중국 전통 양식의 8각 2층

누각 '회란각'이 있다. 무엇보다 잔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청다오 맥주' 라벨에 그 모습이 사용되면서부터이다. 이로써 잔교는 단순한 다리를 넘어 청도라는 도시 자체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브랜드가 되었다.

우리가 방문할 당시 잔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인파로 가득차서 활기가 넘쳤고 다리를 따라 걷다 보면 한쪽으로는 붉은 지붕의 유럽식 근대 건축물이 즐비한 구시가지가, 다른 한쪽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솟은 신시가지가 펼쳐졌다. 과거와 현재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이 독특한 풍경은 청도의 역사적 깊이와 발전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경험을 선사했다.

잔교 방문은 우리 창녕군의 관광 정책과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안겨주었다. 잔교가 청도의 정체성을 대변하듯, 창녕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랜드마크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생태의 보고 우포늪, 전국 최고 수온의 부곡온천 등 우리 군은 훌륭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들 자산 중 하나를 '창녕의 잔교'로 키워내서 누구나 창녕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 청도 맥주박물관

청도 맥주박물관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도시의 산업 유산을 성공적인 문화 관광 자원으로 전환시킨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칭청도 맥주박물관은 1903년 독일이 청도를 조차하던 시절 설립한 맥주 공장을 2003년 100주년을 맞아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으로, 중국 국가로부터 AAAA 등급을 받은 높은 수준의 관광지이다.

청도오 맥주박물관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있다. 박물관 관람 동선에 포함된 시음 코너에서는 공장에서 갓 생산된 신선한 원액 맥주와 순생 맥주를 맛볼 수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맥주 땅콩'은 그 자체로 인기 있는 기념품이 되었다.

우리 창녕군도 청도 맥주박물관처럼 창녕의 대표 농산물인 마늘과 양파를 주제로 역사관, 스마트팜 재배 과정 견학, 가공품 만들기 체험, 판매장을 결합한 6차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창녕을 알리고 지역이 가진 고유한 유산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노산

중국 산둥성 청도에 위치한 노산은 ‘바다 위의 선산’이라는 별칭을 가진 중국의 유명한 명산이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중국 5A급 풍경구이자 도교의 발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노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도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유적을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였다. 셔틀버스와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체력적인 부담없이 노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노산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우리군의 자랑인 화왕산과 가야고분군,

부곡온천, 우포늪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전략에 참고할 부분이 있었다.

○ 연수 후기

이번 중국 연수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도시 발전·복지·산업·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통해 우리 지역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정활동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해천만 온천호텔에서는 온천과 리조트를 결합한 복합관광 모델을 통해 창녕 부곡온천의 재도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백두산요양원의 헌신적인 돌봄 현장은 우리의 공동체 정신과 사회복지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또한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에서는 출향인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도시계획관과 잔교, 맥주박물관을 통해 본 청도의 발전상은 ‘역사 보존과 현대적 발전의 조화’라는 도시 철학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창녕’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 해외에서 얻은 배움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이번 연수의 소회를 마친다.

이승렬 의원

○ 서론

2025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중국 청도 국외 연수는 창녕군의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일정이었다. 본 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창녕군의 지역 개발, 관광 활성화, 복지 정책, 도시계획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 창녕군은 부곡온천을 비롯한 지역 관광지와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 문제, 스마트 도시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기에 청도 사례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군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연수에 임했다.

개인적으로는 관광과 복지, 도시 계획, 스마트 기술 접목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에 각 견학지에서 체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의원 시각에서 분석하고 창녕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단순히 시설과 기술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 지역 브랜드화, 문화적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 해천만 온천호텔: 복합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천만 온천호텔은 바다와 인접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호텔에서 바로 해수욕장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부 시설은 외관과 달리 오래된 느낌을 받았다. 화려함보다는 마치 과거 부곡하와이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였다.

호텔은 온천, 숙박, 쇼핑, 레저, 문화공연이 통합된 복합형 리조트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이 장기간 체류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다양한 테마탕과 해수를 활용한 건강·미용 프로그램은 관광 콘텐츠 차별화 측면에서 참고할 만했다.

○ 5.4광장: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청도 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5·4광장은 1919년 중국의 반제국주의·애국운동인 5·4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상징적인 공간이다. 광장 중앙에는 붉은 나선형 조형물인 ‘5·4운동 기념비’가 우뚝 서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밤이 되면 건물의 조명과 조형물의 불빛이 하나로 어우러져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현장을 직접 바라보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규모의 압도감이었다. 중국은 경제 대국답게 광장의 면적, 조명 시스템, 조형물의 크기 등 모든 면에서 스케일이 컸고 도시의 상징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과 역사적 기억을 동시에 담아낸 ‘정체성의 광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장소였다.

또한 본 의원은 2023년 싱가포르 국외연수 당시 방문했던 ‘마리나 베이 샌즈 빌딩’ 일대의 야경이 떠올랐다. 싱가포르 역시 도시의 상징물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도시의 차이는

분명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현대적 세련미와 질서정연함을 보여줬다면 청도의 5·4광장은 역사적 상징성과 대국적 스케일이 결합된 형태였다.

본 의원은 도시의 랜드마크는 국가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 우리군 역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상징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관광객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느낀 점은, 시민 의식과 질서 유지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었다. 광장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이나 소란이 거의 없었고, 치안 역시 잘 유지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광장을 관리하는 당국의 체계적 운영과 시민 교육, 법규 준수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광장 관리 방식에 대해 현지 가이드와 관찰을 통해 유추해 보면, 먼저 청소와 정기 점검 인력 배치가 잘 이루어져 있었다. 쓰레기통 배치와 청소 인력의 순환 체계가 명확하여 광장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었고, 조명·조형물 등 시설물 유지 관리 역시 정기 점검과 보수 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듯했다. 또한 안전 관리와 순찰 체계가 결합되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범죄 우려가 거의 없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본 의원으로서도 창녕군에서도 광장 및 공공 공간 활용을 확대하면서 단순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관리·점검 시스템과 시민 참여 기반 공공 질서 유지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특히 축제나 야간 이벤트 등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할 경우 청결, 안전, 질서 유지가 곧 관광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리 전략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백두산 요양원

백두산 요양원은 2006년 설립되어 중국 거주 조선족 노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낡은 건물과 오래된 시설임에도,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 기반 복지 모델이 인상적이었다. 명절 행사, 전통 음식 체험,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은 입소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노인복지에 정답은 없으며 다양한 모델을 조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창녕군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경우에는 문화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이 점차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확대를 통해 공동체 기반 돌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두산 요양원 사례는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이 생활 지원을 넘어 문화적·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창녕군의 노인복지 정책도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무인 택배자동차

청도 신도시에서 운행 중인 무인 택배자동차는 효율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발명품을 보는 듯했다.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건비 절감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았고, 반복적 배송 경로의 자동화 등은 도시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었다.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의원의 시각에서 본다면, 기술의 혁신성만큼이나 안전성 확보 또한 핵심 과제였다. 자율주행 차량이 원활히 운행되기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 긴급상황 대응체계, 교통신호 연계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생활하는 도시 공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이 곧 기술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아울러 우리 군에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필요했다. 고령 운전자가 많고, 농번기에는 농기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범 단계를 거쳐 안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우리군에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이 느껴졌다.

그러나 서울·대구·부산 등 대도시와 여러 신도시 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좋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 실제 도입이 된다면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도입과 실험을 이어가며 무인 물류 시스템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성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창녕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에도 스마트 물류 기술이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도시계획관

청도는 중국 산둥성 동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과거에는 평범한 농촌 소도시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1984년 중국 정부가 청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기반으로 항만, 산업단지, 도로, 신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재는 약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 동부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청도 도시계획관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농경지에서 출발한 소도시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첨단산업과 금융, 관광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발전한 모습을 보며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계획도시로서의 구조적 강점, 도로망의 체계적 설계, 상업·주거·산업 구역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이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청도의 발전 과정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 모습과 닮아 있었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도시를 확장하고 국가의 비전 아래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구축해 나간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 시기와 유사한 것 같다. 청도는 이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산업도시에서 ‘살기 좋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24년도 국외연수 당시 일본 교토 마을 만들기센터의 방문 경험이 떠올랐다. 당시 교토에서는 도시 성장보다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었다. 청도가 국가 주도의 거대 인프라 중심 개발을 통해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교토는 주민 자율 참여와 지역 고유성 보존을 통해 내실 있는 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다. 두 도시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균형 잡힌 개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본 의원은 청도 도시계획관 견학을 통해 도시 발전의 성공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적 설계,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자부심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창녕군 역시 지역의 역사와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 도시 설계와 주민 참여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국외연수 소감

이번 중국 청도 연수는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느낀 다양한 정책 사례와 발전 모델은 견문 확장을 넘어 우리 창녕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비록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사례를 군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정선 의원

○ 1일차 (8.25)

- 청도국제공항 도착, 해천만 호텔
- 5·4광장 요트 경기장(올림픽 세일링센터) 운영사례 확인
- 5·4광장 야경·라이트쇼 관람

과제가 따르는 의정연수라 할지라도 설렘으로 밤잠을 설치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다. 청도는 19세기 말 이전에는 산둥반도 남쪽의 어촌마을 포구였으나 본격적인 도시화는 열강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이 가오저우만(교주만) 조차지를 확보하고 청도에 해군기지·근대 항만·도시계획을 구축하였다. 그 유명한 청도맥주공장(1903)도 독일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자오지(膠濟) 철도 개통 등으로 근대 도시 기반이 형성된 곳이다. 청도의 독일풍 건축 유산은 이때 생겨난 것이다.

청도 국제공항은 신공항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세련된 첫인상을 주었다. 규모가 엄청 큰 것 같아 확인하니 이전 류팅공항이 2021년 청도 신공항으로 완전 이전·폐쇄되고, 신공항의 면적은 약 9,274,608평에 달한다고 나온다.

첫 방문지는 청도 해천만(海泉灣) 호텔이다. 바다와 닿아있는 지중해풍 리조트로, 해양 브롬염 온천, 실내·외 수영장, 가족형 놀이 시설(워터파크, 실내 펫/키즈존 등)과 회의·연회 공간을 갖추었으며,

객실은 약 600실에 달한다니 놀랍다. 해천만 리조트 자체는 온천과 해변이 함께 있고 레스토랑과 다양한 테마탕(유럽식·일본식·한국식 등)을 꾸민 복합 휴양지로 알려져 있어, 단체 연수나 가족 여행 코스로도 자주 이용된다고 한다.

워터파크를 지나 밖으로 나가니 바로 바다였다. 바다를 보며 혼자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욕조처럼 작게 만들어진 탕을 보며 속으로 왜 이곳을 숙소로 정하지 않았는지 서운한 마음이 일었다. 원수(지하 온천수)



온도는 최대 약 93° C 정도이나 실제 탕의 온도는 약 38-41° C로 운영된다고 한다. 원수는 매우 뜨겁지만 이용객이 들어가는 탕은 일반적인 온천 목욕 온도로 맞춰진다는 것이다. 반신욕하기에도 적당한 온도이고 탕의 깊이도 그러했다.

호텔 안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손톱이 너무 길어서 자꾸만 눈길이 간다. 왜 기르냐고 물으니 “얼마나 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기른다.” 고 해서 웃었다. 깨끗하게 잘 손질된 손톱도 인상적이었지만 의회에서 준비한 작은 기념품으로 성의를 표시하려니 끝내 받을 수 없다며 사양했던 모습과 함께 해천만 호텔의 이미지로 함께 기억되고 있다.

다음 코스는 청도 요트경기장(청도 올림픽 세일링 센터)이다. 푸산만(Fushan Bay) 옛 북해조선소 부지에 조성된 마리나로 2008 베이징올림픽·패럴림픽 요트 경기 개최지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곳이다. 현재는 시민개방으로 산책로·요트선착장·크루즈 부두 등 시민 관광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즐비한 요트의 용도를 물으니 관광객들의 요트체험으로 수입을 창출한다고 했다. 밤에 요트에 불을 켜놓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한다. 교육도 가능할 것 같다. 상업적으로 접근해서 복합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다.

북적이는 관광객들 사이에 문혀 걸어가자니 유독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눈에 많이 띈다. 청도 여행 내내 아이스크림 가게가 가는 곳마다 눈에 띄었다. 중국 사람들이 유독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 보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요트에서 바라보는 5·4광장의 라이트 쇼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바다 바람은 설레듯 불어왔고 고층 빌딩 벽면에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화려한 라이트 쇼는 눈을 땔 수 없는 경이로움을 선사했다. 함께 오고 싶은 가족들, 지인들이 덩달아 생각나는 시간이었다.



◎ 요트에서 바라본 54광장 라이트쇼, 야간 체류 및 소비 증대 기여의 성공사례

요트경기장 바로 옆이 54광장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광장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차지하던 산둥 지역의 권익을 일본에게 넘기기로 결정되었는데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분노가 거세지며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애국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의 중국의 5·4운동이다.

시청사와 바다가 마주보는 지점이고 라이트쇼가 펼쳐지는 고층빌딩 앞에 위치하여 멀리서 햇불처럼 먼저 눈에 들어왔다. 5월의 바람(五月的风)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형물은 반제국주의, 애국, 청년 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이자 상징물이다. 붉은 나선형 구조물이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모습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단순한 해안공원이 아니라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공간이기에 기대가 컸었다. 일행과 떨어져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며 짧은 시간이 아쉬워 종종걸음을 쳤다.

○ 2일차 (8.26)

- 백두산양로원 방문 : 프로그램 구성 · 의료 · 자원봉사 연계 확인
- 노산 풍경구

아침을 먹고 우리 조선족이 운영하는 백두산양로원을 방문했다. 민간 요양시설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당당하고 다부진

체격의 원장님이 씹씹하게 맞이해 주셨다. 조선족 어르신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보조 없이 입소비와 자원봉사나 일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원장님은 연변대 의학원 출신의 한의사로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은 한의학 전공자이니 아들에게 서양의를 공부하길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함께 이 요양원을 운영하면 입소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한다.

입소자들은 가벼운 농사도 지으며 여가생활과 운동 및 인지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 때는 잘 지나갔는데 그 후가 많이 힘들었고 우울증까지 왔었다며, 그나마 자신이 의사여서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운영에 대한 설명과 솔직담백한 개인사까지 듣다 보니 첫인상의 다부짐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구나 싶었다. 앞으로도 운영은 조선족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서 좋았다.

손님 접대용으로 수박이랑 무화과 그리고 어릴 때 땡깥이라 부르며 따먹었던 까마중이 나왔는데 왜 뭉클했을까? 이곳에선 이게 귀한 음식일까?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 이거라도 내놓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박한 접대 음식은 아마도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이후 이곳 청도에서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태성주얼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을 만났다. 사업장에 들러 청도에 자리잡은 과정과 그간의 경험을 들으며 타국에 와서 성공하신 자랑스런 창녕인이 뿌듯하고 존경스러웠다.

이후 노산을 방문하여 노산 풍경구를 탐방했다. 노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산이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해안선과 함께 웅장한 산세를 자랑한다. 이곳 노산은 중국 8대 도교발생지 중 하나이며 불교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다. 산중에는 여러 사원과 사찰이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인 유적지 탐방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라고 한다. 특히 노산의 주요 사원 중 하나인 '노산사원'은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로 방문객을 끌어 들인다고 한다. 높이는 약 1,133m로 다양한 하이킹 코스와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어 등산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설명이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했다. 셔틀버스를 타고 노산을 오르는 산길 바위들에 새겨진 조각상들이 중간중간 눈을 즐겁게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거봉 순환로의 상부 정거장까지 올라가서, 도보로 10~15분 정도 더 가서 능기봉 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산은 정상까지 올라야 기억에 남는데 시간에 쫓여진 연수 프로그램의 아쉬움이 이런 것에 있는 것 같다.

○ 3일차 (8.27)

- 도시계획관
- 대복도, 잔교, 청도맥주박물관

오전 코스로 청도 도시계획관에 갔다. 청도 지형이 전시되어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며 어마어마한 전시물의 규모가 놀라웠다. 청도의 역사와 미래 도시계획을 모형(샌드테이블),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으로서 항만·도시철도·해양경제권, 생태·스마트시티 계획을 한 자리에서 파악하기 좋았다. 관계자님의 열정적인 설명과 역사 해설을 들었건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설치된 대형 청도 지형 뿐이다.

다음으로 잔교(Zhanqiao)를 먼저 들렀다. 잔교란 배를 댈 수 있도록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뜻한다. 1892년 청나라 때 군용 부두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청도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다고 한다.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교를 걷고 있었다. 여행객들과 현지인들도 많은 것 같았다.



잔교 밑 해변에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뭔가를 채취하고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쪽 뻗어난 잔교를 사람들에 떠밀리다시피 걸었지만 바닷바람은 기분 좋게 불어오고 걷다가 둘러보면 청도 해변가에 위치한 건물들이 멋지면서도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 풍광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 와중에 키스하는 젊은 커플도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써는데 나만 훑쳐보는 것 같았다.

잔교 끝에 있는 회랑정은 청도 랜드마크로 유명하고 청도 맥주제품에 그려진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지만 건물 자체로서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아담고풍한 정자를 너희들이 아직 못봤구나 하며 돌아섰다. 회랑정 밑에 모트보트는 영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모트보트가 캐릭터로 되어있어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싶었다.

점심을 먹고 역사와 문화의 거리라는 대북도로 향했다. 청도가 독일의 식민지였을 때 중심지이다. 독일·일본 조차지 상업지였던 옛 골목과 창고가 남아 있는 보존 구역으로 근대 건축물, 은행, 공방, 카페가 어우러진 거리였다. 리본모형으로 장식한 건물벽이 유독 이뻐 눈에 들어왔다. 길가에 즐비한 아이스크림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사 먹어 보았다. 산뜻한 우유맛이었다.



도식 보행광장과 석당 일대

건다보니 1930년대 독일 선교회가 세운 쌍탑의 독일식 고딕양식의 천주교당(성 미카엘 대성당)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약 60m 높이의 첨탑 2개가 손짓하는 것 같았다. 빨간 지붕·노란 외벽이 주변과도 잘 어울렸으며 현재의 건물로도 손색없이 아름다웠다. 천주교당을 중심으로 유럽식 건축물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가까운 전통 먹자골목도 화장실을 찾으면서 슬쩍 둘러보았다. 점심 시간이 지나서인지 우리의 전통시장 처럼 한적했다. 가이드의 말을 빌리자면 예전에는 문전성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 유명 셰프의 사진이 걸려있는 만두가게가 눈에 띄어 사진을 찍으니 사장님이 척 포즈를 취해 주신다. 일행과 뒤쳐져 만두를 살 여유가 없다. 사장님이 코리아, 한국 뭐라 뭐라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느껴져 웃음으로 응대했다.

청도에 오면 무조건 들러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청도맥주박물관(Tsingtao Beer Museum)으로 갔다. 빨간색 서양식 건축물이 이색적이다. 도로 쪽 지붕에는 거대한 맥주 캔이 있다. 1903년 청도는 독일이 관리하는 곳으로 독일 사람들이 타국에서 고국의 맥주를 먹기 위해 조주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맥주의 역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보여지는 것 같이 전시가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도 볼 수 있고 정통 칭다오 맥주를 무료로 맛볼 수도 있다. 산업유산 관광화의 사례로 성공을 뛰어 넘었다.



화려한 빛과 바닷바람으로 기억되는 청도! 낮과 밤의 얼굴이 마술처럼 달라지는 도시! 어느 곳을 다녀도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어 국제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무인 택배차량을 보면서도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실감했다. 이 보고서를 적으면서도 얼른 다시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이는 곳이다. 여행의 목적으로 노산은 꼭 트레킹으로 오르리라.

○ 본 연수는 복지·도시개발·환경·관광·산업 등 다각도로 중국 청도 사례를 현장에서 비교 견학함으로써 우리 군 정책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 짧은 일정이었으나 복합관광 모델, 스마트도시·자율주행, 청정 에너지 전환, 역사·문화자산의 현대적 활용 등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먼저, 해천만 온천호텔 방문을 통해 복합형 온천리조트가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소비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창출하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우리 군 부곡온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온천+ α (공연·쇼핑·레저·축제)’의 콘텐츠 다각화와 더불어 정기적 유지보수·위생 관리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시설 현대화 못지않게 기본 서비스(청결·안전)의 일관된 관리가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 백두산 요양원은 민족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돌봄 과정에 통합한 문화·정서 기반 민간형 복지모델로서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의료전문성 연계, 문화행사·전통식 생활화 등은 전인적 복지 구현에 유효하며, 우리 군도 공공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해 민간 참여형 특화복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자율주행·스마트도시 사례(신도시 내 무인 택배차 운행)를 통해 기술 상용화에는 도시 설계 단계의 사전 반영(전용구간, 신호체계, 물류동선, 안전장치)이 결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창녕대합미니복합타운에 자율주행 친화 설계를 선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행-안전검증-단계적 확대의 로드맵이 요구된다.

○ 청도태서성공예품유한공사(태성주얼리) 방문을 통해 출향인의 글로벌 네트워크·기술·브랜드 협업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출향 인사 네트워크를 체계화하여 청년 기능인 양성, 산업 기술 교류, 지역 농특산·공예의 브랜드화·콜라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도시계획관 및 5·4광장·잔교 사례는 역사·해양자원·야간경관을 결합한 도시 브랜드화와 상시 문화광장 운영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시민 참여형 상설 프로그램(공연·전시·야간콘텐츠)과 체계적 청결·질서·안전 관리가 관광 만족도와 체류시간 증가로 직결됨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군도 우리의 고유 자산의 현대적 재해석과 상징 공간 조성으로 지역 정체성과 경제활동의 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청정에너지·환경정책은 석탄 중심에서 가스·전기·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공·산업부문 효율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위상에 걸맞게 주민참여형 자원순환·환경교육 강화, 영농폐기물 관리, 악취 저감 등 생활 밀착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수를 통해 민관협력, 콘텐츠 융합에 의한 체류형 관광, 스마트 도시 기반 교통혁신, 생활밀착 환경거버넌스, 문화·정서 통합형 복지, 출향인 네트워크의 지역산업 접목이라는 여섯 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수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실행과제를 발굴·정교화하여, 사람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창녕을 구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붙임1 중국 국가현황

1) 일반사항

- 국 명: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People's Republic of China)
- 수 도: 베이징(北京, Beijing)
- 인 구: 약 14억 2580만명
- 면 적: 약 9,600,000 km²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
- 종 교: 공인된 특정 종교보다는 유교 · 불교 · 도교 전통이 존재
- 행정구역: 23개 성(省), 5개 자치구(自治区), 4개 직할시(北京 · 天津 · 上海 · 重慶), 2개 특별행정구(홍콩 · 마카오)

2) 정치현황

- 정부형태: 사회주의 일당체제, 공산당 주도체제
-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주석(中华人民共和国国家主席)
- 총 리: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 의회구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참사기관 등을 포함하는 일당 정치구조
- 주요정당: 공식적으로는 중국공산당 단일정당이 지배적이며, 기타 위성정당 존재하지만 실질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됨
- 국가형태: 인민민주독재(중국식 사회주의) 형태이며, 서구식 입헌 군주제나 내각제와는 구분됨

3) 경제현황

- GDP : 약 1조 7,794억 달러 (2023년 기준)
- 1인당 GDP : 약 12,074 달러 (2023년 기준)
- 경제성장률 : 약 4.8% 수준(2025년 예상치)
- 화폐단위 : 위안(元, CNY)
- 수출액 : USD 3.513 조 달러(2023년)
- 수입액 : USD 2.55 조 달러(2023년)
- 물가상승률 : 0.23%(연간)
- 실업률 : 2.6% (2022 World Bank)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수교
- 투자현황: 대한민국-중국 간 교역량이 매우 크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모두 주요함
- 교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 수출액: 1462억 USD
- 수입액: 1398.7억 USD
- 인적교류
 - 중국체류 한국인: 21.6만명(2023년 기준)
 - 한국체류 중국인: 95만명(2024년 12월 기준)

※ 자료출처: 외교부, CIA World Factbook, World Bank,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붙임2
2025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사회복지·도시개발·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고자 연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내용	· 중국 청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도시계획관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장기적인 도시개발 비전을 구축하고자 함. · 노인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자 함. · 온천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온천개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수사례를 우리 군 부곡온천 발전에 접목하고자 함.						
출장기간	2025. 8. 25.(월) ~ 8. 28.(목) (4일간)						
출 장 국	중국						
출 장 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16명			15,772	
	창녕군의회	의장	홍성두	남	64세	1,133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부의장	노영도	남	52세	1,133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호	남	53세	954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가은	여	61세	954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동훈	남	46세	954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장	하종혜	남	59세	954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의원	신은숙	여	64세	967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의원	김재한	남	65세	967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의원	박상재	남	62세	967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의원	이승렬	남	55세	967	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의원	김정선	여	58세	967	창녕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서혜영	여	50세	967	창녕군의회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성철	남	37세	967	창녕군의회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영목	남	42세	967	창녕군의회
	의회사무과	주무관	한주성	남	33세	967	창녕군의회
	의회사무과	주무관	엄지호	남	54세	987	창녕군의회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8월25일 (월요일)	부산	청도	해 천 만 온 천 호 텔	· 온천개발 자료 수집 · 시설관계자 면담	시설관계자
8월26일 (화요일)	청도	청도	씨 왜 짱 백 두 산 요 양 원	· 복지정책 자료 수집 · 시설관계자 면담	시설관계자
8월27일 (수요일)	청도	청도	청 도 도시계획관	· 도시개발 자료 수집 · 시설관계자 면담	시설관계자
8월28일 (목요일)	청도	부산	-	· 이동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창녕군의회	의장	홍성두	· 연수단 총괄
2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가은	· 문화 및 관광자원 연계 방안 자료 수집 ·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료 수집 · 기타 의회 운영 관련 자료 수집 등 · 연수 보고서 작성(개별)
3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렬	
4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신은숙	
5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종호	
6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정선	
7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 도시개발 관련 연계 방안 자료 수집 · 온천개발 분야 관련 자료 수집 · 기타 의회 운영 관련 자료 수집 등 · 연수 보고서 작성(개별)
8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종혜	
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재한	
1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노영도	
1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상재	
12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서혜영	· 연수 운영 총괄 · 의장 보좌 및 안내
13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성철	· 물품 관리 및 경비 관리 · 방문지역 자료 기록
14	의회사무과	주무관	김영묵	· 연수프로그램 일정 관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좌 및 안내 · 방문지역 자료 기록
15	의회사무과	주무관	한주성	· 방문지역 자료 기록 · 연수보고서 작성(총괄)
16	의회사무과	주무관	엄지호	· 방문지역 자료 기록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보좌 및 안내 · 사진 및 녹음 기록 등

3. 출장경비

(단위: 천원)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교통비)	준비금	기타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5,772	1,356	6,190	4,076	3,910	240	
홍성두	1,133	97	463	323	235	15	
노영도	1,133	97	463	323	235	15	
김종호	954	83	376	245	235	15	
이가은	954	83	376	245	235	15	
이동훈	954	83	376	245	235	15	
하종혜	954	83	376	245	235	15	
신은숙	967	83	376	245	248	15	
김재한	967	83	376	245	248	15	
박상재	967	83	376	245	248	15	
이승렬	967	83	376	245	248	15	
김정선	967	83	376	245	248	15	
서혜영	967	83	376	245	248	15	
김성철	967	83	376	245	248	15	
김영목	967	83	376	245	248	15	
한주성	967	83	376	245	248	15	
엄지호	987	83	376	245	268	15	

4. 출장효과

-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도시개발·사회복지·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비교전학함으로써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발전 전략 모색 및 정책 연구
- 선진도시 기관 방문을 통한 연구 및 분석으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지식 함양과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 아시아의 관광 선진국인 중국의 세계적인 문화 자원과 도시기반 시설 탐방을 통한 창녕의 관광자원 활용 시책 창안과 효율적인 지역 발전 방향 연구

- 일 시 : 2025년 8월 14일(목) 14시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심사안건**1. 창녕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건**

(14시07분 개의)

○간사 서혜영 안녕하세요?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서혜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기로 하신 강현수 위원장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박영문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영문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선배님들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 선정의 타당성, 출장 기간과 출장경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의회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창녕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교육으로 인한 부재 또는 출장의 당사자로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창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창녕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으며, 의사진행은 간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여 심의의결서에 찬성·반대 결정을 체크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건

○부위원장 **곽영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혜영** 간사 서혜영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계획 수립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마련, 관광시설 비교·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확보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자료수집과 사례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도시개발,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창녕군의회 의원 11명과 사무과 직원 5명 등 총 16명이 중국 출장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2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먼저 출장의 목적입니다.

사회복지·도시개발·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고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출장일정입니다.

첫째날 8월 25일 부산국제공항을 출발해 중국 청도에 도착하여 해천만 온천호텔을 공식 방문해 우리 군 부곡온천 관광활성화 및 온천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둘째날인 8월 26일에는 씨웬쥬 백두산 요양원을 방문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셋째날 8월 27일에는 청도 도시계획관을 공식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사례

를 확인하고, 마지막날 8월 28일에는 청도에서 출발해 부산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과 출장경비, 출장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곽영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돈 위원 출장일정 3페이지 보니까 3박4일로 가시는데 아마 주가 청도 내에서만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 우리 출장경비를 가만히 보니까 3박4일 가는데 상당히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영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일생에 맞추어 가지고 규정에 맞게 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 도시개발, 문화관광 분야에 각 지역마다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상세내용을 보니까 출국 방문자료를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합법적이면서 정확하게, 단순 눌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연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간다는 내용으로 잘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곽영문** 차정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인데 혹시 시간 계획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간사 **서혜영** 잠시만요. 8월 25일 월요일 8시에 8시 부산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이 되어 있고, 청도에 도착하면 12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에는 8시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날에는 공식 기관방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곽영문** 8시가 아침 8시입니까, 오후 8시입니까?

○간사 **서혜영** 아침 8시, 호텔 조식 후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곽영문** 그러면 이것이 3박4일인데 실제로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2박 3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서혜영** 3일간 중국 일정이 있고, 마지막날 일정은 이동 수속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별다른 방문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영문 저희들이 중국 가면 3박5일로 가 가지고 가는 날 밤에 도착하고 아침 새벽에 오기 때문에 2박3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일정은 걱정하게 알차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진돈 위원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간사 서혜영 아무래도 저희가 방문지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1로 계약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연수업체를 경유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영문 김성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성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이 외유성 여행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규정에 따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사 서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혜영 일단은 여비와 차량 임차비, 통역비만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방금 얘기했던 기록을 잘 작성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간사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영문 지금 방문 기관을 보면 첫날은 해천만 온천호텔, 백두산 요양원, 도시계획관 이렇게 있는데, 그 날짜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온천호텔 가본들 소요시간이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서혜영 일단은 현지 시설견학과 현지 시설 관계자하고 면담 시간이 따로 잡혀 있어서 통역까지 같이 대동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현지 사정에 저희가 밝지 못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영문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에서 다른 것을 하더라도 외유성은 안 하겠지만, 좀 더 알차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전에도 의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수사도 받았다고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여기 큰 핵심은 온천호텔에 가서 온천개발에 대한 자료 이런 관계인테 가서 이것 말고도 시간상 이것 말고 하나만 하고 된다면 끝이 나는 것이고, 만약에 더 한다면 외유성이 아닌 바에는 더 상세하게 더 작성을 해서 다음에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데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영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결의서에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총 4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으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곽영문, 김성기, 차정화, 하진돈



島 華 青 假 期 國 際 旅 行 社

Qingdao Huaqing Holiday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TEL:86-532-8796-8292,

수신:

발신: 청도화청홀리데이여행사/권귀화 부장 드림

항목: 버스임대 영수증

발신일: 2025 년 8 월 22 일

일자	일정	요금
8 월 25 일	청도공항/청도 시내	390500 원
8 월 26 일	청양/시내	390500 원
8 월 27 일	청양/지북	390500 원
8 월 28 일	청양/청도공항	390500 원
합계		1562000 원



운행완료확인서

창녕군의회 귀중

일 자	운 행 내 역	대 수	차 량 번 호	비 고
2025년 8월 25일~28일 (4일)	청도공항/청도 시내	1	B-J9829	운행완료
	청양/청도 시내	1		운행완료
	청양/지북	1		운행완료
	청양/청도공항	1		운행완료

2025년 8월 29일

위와 같이 운행 완료함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주)제윤의정
 사 업 자 번 호 : 504-81-80354
 전 화 번 호 : 1566-2886
 대 표 이 사 : 윤 금 례 (인)



통역 지원 확인서

창녕군의회 귀중

○건 명 : 2025년 창녕군의회 국외 선진시책 벤치마킹 공무 국외연수에 따른 통역 지원

○통역기간 : 2025.08.25.(월) ~ 08.27.(수)

○통역시간 : 15시간

- 연수일정 중국 청도 순차통역(방문기관 협의 및 통역지원)

○통역근무자 : 한용범 (韩龙范 HAN LONGFAN)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한용범 (韩龙范 HAN LONGFAN)	1979년생(남)	- 경력23년 - 산동성 태산/곡부/청도 전문가이드

2025년 8월 29일

위와 같이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통역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주)제윤의정
 사 업 자 번 호 : 504-81-80354
 전 화 번 호 : 1566-2886
 대 표 이 사 : 윤 금 례 (인)



Memo

